

전북대, THE 세계대학평가 '국립대 1위'

(영국 타임즈사 발표)

국내 종합대학 중 12위... 교육·연구 경쟁력·산업소득 부문 순위 상승 이끌어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6일 영국 타임즈사가 발표한 2017 THE 세계대학평가에서 국립대 공동 1위, 국내 종합대학 12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이 평가 국립대 2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최근 QS 세계대학평가, 아시아대학평가 등 최근 실시된 대부분의 평가에서 국립대 2위를 휩쓸고 오고 있는 전북대는 이번에도 1위에 오르며 높은 위상을 재확인했다.

2004년부터 시행된 이 평가는 세계 77개국 1천1백개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 30%, 연구 30%, 논문인용 30%, 국제화 7.5%, 산업소득 2.5% 등 5개 분야 13개 지표를 면밀히 분석해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이번 평가에서 세계 1천위 대학 중

국내 대학은 27개 대학이었다.

국립대는 전북대와 부산대, 전남대, 경북대, 충남대 등 5개 대학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평가에서 전북대는 지난해에 이어 교육과 연구 경쟁력, 산업소득 부문에서 세계 중위권 수준에 역량을 보이며 순위 상승을 이끌었다.

전북대가 이 같은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대학 연구 경쟁력과 학생들을 위한 교육 여건 개선 등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간 전북대는 연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 지원과 승진제도를 국립대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개선하는 등 제도와 시스템을 손질했고 국립

대 중에서는 유일하게 8년 연속 ACE 사업을 유치해 신입생 4학기제 수준별 분반 수업 등 이 대학만의 학부교육 선도 모델을 구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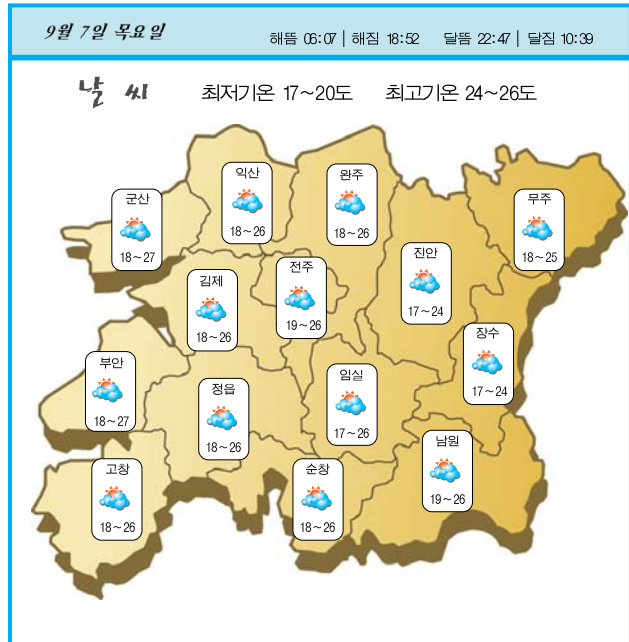
최근에는 모범생을 넘어 모범생을 키우겠다는 목표 아래 생활관을 전인·전일 교육의 장으로 바꾼 레지덴셜 칼리지를 도입했으며 졸업까지 한 학기 이상은 반드시 다른 나라나 타 지역에서 언어와 그 지역의 문화를 배우는 오프캠퍼스 제도를 운영하며 학생들의 만족감을 크게 높이고 있다.

특히 대학 특성화 사업과 인문역량 강화사업,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등 정부지원사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교육·연구 분야

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며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최초 세계 5번째로 설립된 고온플라즈마응용연구센터와 아시아 최대 규모로 시설비만 4백억원이 투입된 인공공통전염병연구소, 국내 대학 최초로 최대 규모의 식물공장을 보유한 LED농생명융합기술연구소, 원자력발전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한 미국 로스앨러모스국립연구소 아시아 부문, 2백80억 원을 투입 미생물산업의 메카가 될 농축산업 미생물산업 육성지원센터, 국내 학술단체 최초로 유네스코 인가 NGO로 승인받은 무형문화연구소와 영국 캠브리지대학이 주목한 한국과학문화연구소 등 세계적인 연구소를 집중 육성하여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잇따라 내고 있다.

/정해은 기자



전북대-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상호협력체제 구축 맞손

전북대학교 총장 이남호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안영희)이 상호협력체제 구축과 효과적인 연구 교류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6일 오전 11시 전북대 본부 8층 회의실에서 이남호 총장과 안영희 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담수생물 자원 보전·관리와 공동 연구 개발에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구 개발을 위한 자원과 전문가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효율적인 인적 교류도 하기로 했다.

또한 생물자원 관련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강의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남호 전북대학교 총장은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력과 교육시스템을 갖춘 두 기관이 담수생물 자원 보전과 관리를 위해 힘을 모은다면 양 기관은 물론 지역과 국가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더욱 긴밀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원광대 이윤선 초빙교수 직업능력 개발 기여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원광대학교 인력개발처 이윤선(사진) 초빙교수가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직업능력의 달' 행사에서 직업능력 개발에 기여한 공로로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직업능력의 달' 행사는 '사람중심 경제'를 달성하는 핵심동력으로 직업능력 개발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직업능력개발 방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마련

됐다.

이윤선 교수는 직업능력향상 등 능력 중심사회 조성에 탁월한 공을 인정받아 HRD 업무종사자 분야에서 표창장을 받았다.

대한민국산업협회장 교수인 이윤선 교수는 청년 일자리창출과 지역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일학습병행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기업 컨설팅에 적극 참여하고 학습모듈 개발, 자격 문제 출제 등을 통해 지역에 NCS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했으며, 대학 및 일자리 창출 유관기관에서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한 NCS 기반 채용 관련 강의로 능력 중심사회 입지 구축에 일조해 그 공적을 인정받았다.

/익산=정원원 기자

전북대, 전북 선도기업 분석대회 휩쓸어

대상 등 7개 팀 입상...학생 기업분석 능력 두드러져

전북대학교 학생들이 전라북도(제)전북테크노파크, 전북대학교 INC+사업단이 주최하고 (사)캠텍종합기술원이 주관한 제1회 전라북도 선도기업 분석경진대회에서 1위를 포함하여 참가한 7개 팀이 입상하는 성과를 올렸다.

전라북도 선도기업 분석경진대회는 대학 재학생 등 청년들이 전북도 선도기업 중 입사 희망기업과 직군을 지정해 1개 기업의 환경분석(3C/FAW), 사업전략 마케팅 전략, 기술부문 등의 분석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 제고나 제품개발 등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대회이다.

총 18개 팀 47명이 참가하였으며 1차 예심을 통해 2대 1의 경쟁을 뚫고 9개 팀 22명의 학생들이 본선에 진출한 가운데 열린 이번 대회에서 전북대는 임형섭(경영학과) 학생이 다산기공 기업에 대한 '자사 고유의 총기 개발 분석내용을 발표해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전북대 이은호(전자공학부)·김세희(동물자원공학과)·박상철(전자공학부) 학생 팀은 최우수상을, 김진실(무역학과)·김성민(경영학과) 학생 팀은 우수상을, 김정현(화학공학과)·양기준(화학공학과)·송가현(중어중문학과) 학생 팀과 홍경민(고분자

나노공학과)·이도영(중어중문학과) 학생 팀이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전북대 학생들의 기업분석 능력이 두드러졌다.

이는 전북대 INC+사업단이 지역인재 발굴 및 지역사회 상생 발전을 목표로 다양한 지역기업 인식개선 교육, 지역기업 취업 연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고영호 INC+사업단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전북지역에 있는 선도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이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지역 경제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전북교육문화회관,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

전북교육문화회관이 전주지역 학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017 인문학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인문학 아카데미는 이달부터 11월 까지 석달 동안 총 28회에 걸쳐 문학, 역사 철학 등을 주제로 강연과 작가와의 만남 등이 진행된다.

먼저 청소년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열리는 '꿈의 인문학'은 6일 조법중 우석대 교수의 강연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12회에 걸쳐 전북교육문

화회관 2층 교육4실에서 펼쳐진다.

전주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인문학 교실'은 초등학교 8곳, 중·고등학교 8곳 등 총 16교를 매주 목요일 1곳씩 찾아가게 된다.

교육문화회관 관계자는 "지역 독서 문화 중심 기관으로서 학생과 지역주민의 삶을 중요하게 해줄 인문학 강연을 준비했다"면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정해은 기자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